

▶ 달러/원 주간 전망

• 심상치 않은 상승 속도... 부담스러운 美 금리에 수급 부담까지

서울, 8월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 분기 배당 지급에 따른 수급 영향 등을 살피며 상승 탄성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40원이다.

8월 들어 환율이 50원이나 급등했다.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위안이 약세를 재개한 건 맞지만, 그런 흐름을 감안하더라도 원화 약세 속도가 가파르다.

해외 자회사 배당 유보금과 증공업 네고 관련 매물이 소화되고 있지만, 외은 중심의 강한 달러 매수가 뒷받침되면서 환율 상승세는 매섭다. 전주 환율은 단기 박스권 상단인 1,320원대를 상향 돌파했고, 역외 거래에서는 1,330원선 근처까지 더 올랐다.

주초 1,330원대 진입을 두고 시장 내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계속된다면 레벨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추가 약세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고점을 향해 전진하는 미국 국채 금리 흐름과 함께 최근 다시 약세 변동성을 키우는 엔과 위안 행보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주중 나올 중국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핵심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안 블록 통화에 속한 원화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엔과 위안에 대한 당국 개입 변수가 한층 커진 상황에서 원화도 점점 더 당국 개입을 의식해야 하는 레벨로 다가서는 만큼 관련 시장 경계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수급 무게중심이 다시 위 쪽으로 옮겨가는 점은 시장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의 환전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자금이 이미 유로로 환전됐다는 보도도 있지만, 당분간 관련 수급 경계감은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주중에는 삼성전자 분기 배당까지 대기하고 있어 이래저래 수급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 개입 레벨로 인식되는 1,340원대를 수월하게 상향 돌파하기는 녹록지 않아 보이지만, 수급 풀림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오름폭을 키울 여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한편 금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미국 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와 7월 산업생산 등 시장이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도 꽤 대기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위기 속 원화가 최근의 가파른 약세 흐름을 지속할지 주목되는 한 주다.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8월14일(월)

- ⊙ 한국은행: In Search of the Origin of Original Sin Dissipation (BOK 경제연구 제2023-16호) (12:00)

8월15일(화)

- ⊙ 광복절

8월16일(수)

- ⊙ 금융위원회: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발표 (10:00)
- ⊙ 한국은행: 2023년 14차(7.27일 개최, 비통방)금통위 의사록 공개 (16:00)

8월17일(목)

- ⊙ 한국은행: 2023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 (09:00)
- ⊙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10:00)
- ⊙ 기획재정부: '23.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 ⊙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배포시)

8월18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14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8월10-17일		중국	FDI (YTD)	7월		-2.70%
8월15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2분기	3.1%	2.7%
8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7월		3.8%
8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7월		4.4%
8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7월		3.1%
8월15일	21:30	미국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8월		1.10
8월15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7월	0.1%	-0.2%
8월15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7월	0.2%	-0.9%
8월15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7월	0.4%	0.2%
8월15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8월		56
8월16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8월		3
8월16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7월		0.0%
8월16일	18:00	유로존	고용 잠정치	2분기		166,419.1k
8월16일	18:00	유로존	GDP QQ	2분기	0.3%	0.3%
8월16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6월	-0.6%	0.2%
8월16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11일 주간		194.5
8월16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7월	1.460M	1.441M
8월16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7월	1.440M	1.434M
8월16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7월	0.3%	-0.5%
8월17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MM	6월	3.6%	-7.6%
8월17일	08:50	일본	수출 YY	7월	-0.8%	1.5%
8월17일	08:50	일본	수입 YY	7월	-14.7%	-12.9%
8월17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7일 주간		248k
8월17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연은 기업활동지수	8월	-10.0	-13.5
8월18일	08:30	일본	근원 CPI YY	7월	3.1%	3.3%
8월18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최종 MM	7월	-0.1%	0.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15일(화)

- ⊙ 호주 중앙은행 8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API 연례 컨퍼런스 참석 (16일 오전 0시)

8월16일(수)

- ⊙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오전 11시)
- ⊙ 연방공개시장위원회 7월25-26일 회의록 공개 (17일 오전 3시)

8월17일(목)

-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5시)

▶ 주간 세계 5대 이슈

⊙ 中 경제지표

중국은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주택시장 위기가 다시 불거졌고, 성장과 민간 투자는 여전히 취약하다. 또 소비와 서비스는 고대했던 포스트 코로나 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장은 지난 7월 말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 구체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아 실망했고,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불투명한 전망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15일 발표될 소매판매는 소비가 약 3%였던 6월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여주게 된다. 올해 초의 두 자릿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주택부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주택지표와 산업생산도 같은 날 발표된다.

⊙ 연준 7월 회의록

이달 말 연방준비제도의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시장은 연준의 7월25-26일 회의록과 소매판매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공개되는 회의록은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 관계자들이 어떤 의견을 나눴는지 좀 더 명확히 보여줄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고, 9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7월 물가지표는 그러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멀어지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15일 소매판매도 주시하고 있다. 6월 소매판매 증가세는 예상을 밑돌았으나 소비자들이 금리 인상을 극복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른바 "연착륙" 전망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GDP

유로존은 지난해 4분기 0.1% 수축했지만 1분기 성장률이 0%를 기록하면서 기술적 경기침체를 피했다.

16일 공개되는 2분기 데이터는 성장세가 회복됐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공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전분기비 0.3%였다.

침체 영역으로 내려앉은 기업활동지표 등 여러 지표가 둔화를 시사하고 있지만 실업률은 아직 사상 최저 수준이다.

머니마켓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더 인상한 뒤 내년 봄 인하를 시작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GDP 데이터는 다음 달 ECB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국채와 경제 성장

일본 국채 투자자들은 몇 주간의 혼란 끝에 마침내 10년물 수익률의 적절한 수준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행(BOJ)의 깜짝 정책 조정 이전 수준에서 멀지 않다.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9년 만의 최고치인 0.65%까지 뛰어 BOJ의 개입을 초래한 뒤 0.58% 부근에서 안정을 찾았다.

이는 BOJ의 힘이 아니었다. 궁극적으로 수 년간 0.5%를 밀둔 이후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또 장기금리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정책 결정권자들은 임금 상승세 지속 여부, 그리고 중국의 부진에 따른 수출 타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현 상태는 16일 GDP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英 고용지표와 금리 전망

영국 고용시장 지표는 금리 전망에 그 어떤 지표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 15일 발표될 고용 지표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민간 데이터는 견실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채용고용연맹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 공급은 지난달 2009년 10월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영란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곧 끝나리라고 예상한다. 모간스탠리 전략가들은 9월 한 차례 추가 인상 후 장기간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 - 美 증시 랠리 위협 요소로 부상한 채권 수익률

뉴욕, 8월09일 (로이터) -

미국 신용등급 강등부터 지역은행 우려 재부상 등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증시 변동성은 악화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인상한 작년에는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지표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다소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S&P500지수는 3월 저점 대비 16% 이상 급등했는데, 이 기간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약 50bp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작년 고점에 다가갔고 S&P500지수는 7월 고점 대비 2% 하락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주식 밸류에이션이 확장된 상황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S&P500지수와 10년물 수익률의 1개월 연관성은 2000년 이후 가장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두 자산이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ofA의 애널리스트들은 수익률 상승을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리스크(an underpriced risk)"라고 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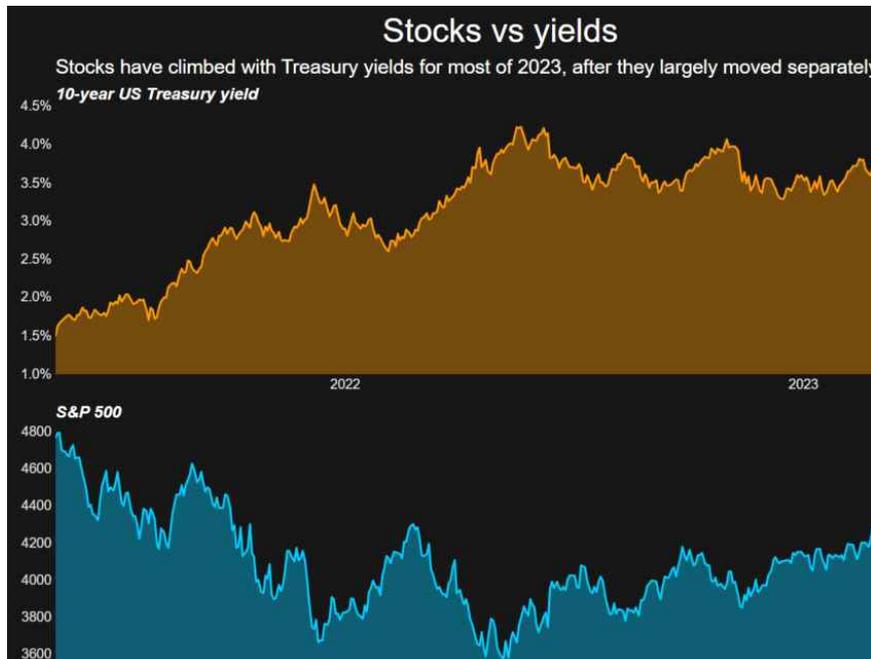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키스 리너 공동 수석 투자 책임자는 "시장은 수익률 상승을 양호한 경제 및 경기침체 리스크 약화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았다"라면서 "그러나 수익률이 계속 오르면 밸류에이션 추가 확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련의 소식들은 그동안 패기만만했던 시장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지난주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 이후 무디스는 일부 미국 지역은행 신용등급을 낮추며 일부 대형 은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부진한 무역 지표는 빠른 경제 회복 기대감을 약화시켰고, 지난 4일(현지시간) 애플 주가는 실적 실망감에 하락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호 수요를 알 수 있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는 지난달 말 3년여 만의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8일 2개월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체이스 인베스트먼트 카우슬의 피터 터즈 대표는 시장은 8월로 가면서 안일했을 수 있는데 최근 소식들은 "약간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리스크가 있음을 상기시켰다"라고 말했다.



◆ 밸류에이션 우려

주식과 채권의 관계를 살피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밸류에이션 상승은 우려스럽다.

올해 주식시장 랠리 속 밸류에이션은 더 확대됐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S&P500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지난 7일 19.6배로 작년 말의 17배 미만보다 높아졌다. 장기 평균치는 15.6배다.

한편, 국채 대비 주식의 매력도를 비교하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ERP)은 2023년 대부분 축소돼 왔으며 현재는 10여년 만의 최저치 부근에 머물고 있다.

시장은 10일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라는 중요한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 연준 정책이 더 매파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동안 경기둔화를 잘 피해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상승이 소비자 지출 억제 또는 기업 이익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몇 달간 성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매튜 미스킨 공동 수석 투자 전략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경제 타격, 실적 하락 그 어느 형태로든" 수익률 또는 금리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주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시작할지에 대해 시장은 가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주식은 수익률 상승에도 "놀라운 정도로 회복력을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분석) -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 핵심 지지력 잃은 위안

상하이/시드니, 8월08일 (로이터) -

지난 1978년 덩 샤오핑 체제 하에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개방한 후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 접근과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수천억달러를 들여 공장 건설과 매수에 나섰다. 이는 위안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 분기 가파르게 줄기 시작했고, 중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25년 전 집계기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기 추세가 전환되고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기업 지도자들과 고문들은 변화가 진행 중이며 투자 결정에 있어 정치적 우려는 장기적이고, 이에 오랫동안 위안을 지탱했던 요소가 이제는 위안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다.

분석 회사인 로디엄그룹의 로간 라이트 중국시장 리서치 디렉터는 "역사적으로 볼 때 FDI는 환율 가치에 큰 변동 요인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연간 5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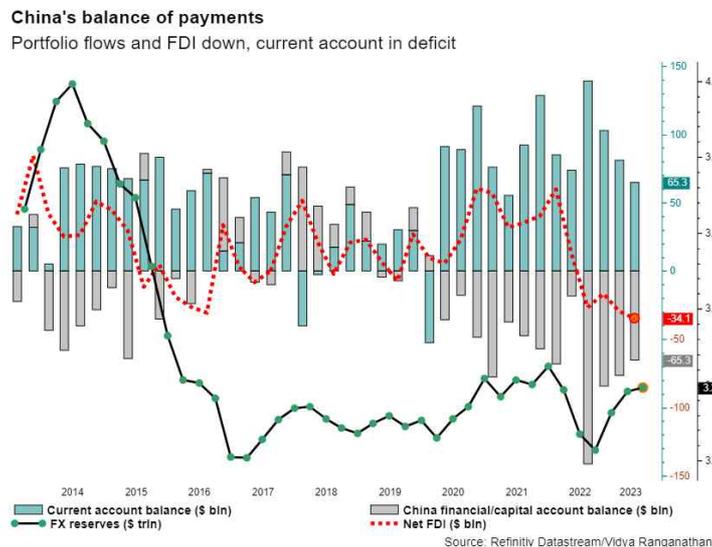
그는 "그러나 현재처럼 적자로 전환될 때...이는 꽤 큰 조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의 지난주 발표에 따르면 2분기 FDI 유입은 49억달러 미만으로 둔화됐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로 순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 적자인 34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는 중국과 서양의 정치적 및 경쟁적 갈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외교적 긴장 외에도 제조업 및 공급망 혼란을 초래한 중국의 엄격한 '제로 로코나' 정책으로 기업들의 신뢰는 이미 타격을 입었다. 또한 일부 산업에 대한 중국에 규제 단속과 미국 컨설팅 기업에 대한 불시 단속 역시 불안 요인으로, 기업들은 언제, 누가 다음 타깃이 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 비즈니스 거래 및 제조 구조화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 부칼터의 주주인 존 라미그는 "중국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고객은 한 명도 없다"라며 "모두들 중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중국에서 제품을 조달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곳을 찾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해도 매우 다르다"라고 말했다.



◆ 큰 결정

더 깊은 변화를 예고하기에 중국 FDI 감소는 눈길을 끌고 있다.

투자자들의 변덕스러운 포트폴리오 흐름과 달리 기업들의 지출은 순환적이긴 하나 기업이 생산을 설립하고 확대하면서 더 끈끈하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여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환율에 대한 압박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최근 SAFE 자료에 따르면 아웃바운드 직접 투자를 위해 이뤄지는 중국 은행을 통한 달러 매수는 올해 외국인 인바운드 투자를 위한 위안 매수를 넘어섰고, 이에 6개월 연속 자금이 유출됐다.

이러한 추세는 상무부 자료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첫 5개월 동안 지불된 FDI는 5.6% 줄며 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달러 약세에도 올해 위안 가치는 달러 대비 약 4% 하락했고, 위안 하단을 지지하는 건 중국인민은행의 낮은 고시환율과 국영은행들의 현물 매수뿐이었다.

물론, 투자 흐름은 종종 변동성을 보이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말 제조 사업 푼카디건을 운영하는 다니엘 시프는 관세와 코로나19 관련 물류 차질로 타격을 입으면서 양쯔강삼각주 하이닝에서 페루로 생산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중국 공장에서의 품질과 가격을 맞출 수 없었다.

BNP파리바에셋매니지먼트의 치 로 선임 투자 전략가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우위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흐름은 위안 방향의 한 부분일 뿐이며 강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FDI 지표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그만두거나 확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 수년간의 자본 흐름의 분위기를 정할 것이다.

베이커 도넬슨의 리 스미스 글로벌 무역 담당 변호사는 "정치적 분위기로 인해 서방 기업들은 중국에서 멀어지고 있다...중국에 있는 이점이 리스크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많은 고객들은 유일한 공급처로 중국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윤아 기자)

((younah.mo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